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MS 데이터센터 축소 우려, 대중 기술 규제 등으로 혼조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4일(월) 미국 증시는 장 초반 지난 금요일의 급락을 되돌리는 흐름을 보였으나, MS(-1.0%)의 데이터센터 투자 축소 가능성, 트럼프 정부의 대중 기술 규제 소식 등으로 AI 하드웨어, 인프라 관련 업종이 동반 급락세를 보임에 따라 혼조세로 마감(다우 +0.1%, S&P500 -0.5%, 나스닥 -1.2%).

전일 일부 외사 증권사를 통해 MS가 2개 데이터센터에 대한 임대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거론됨에 따라, 그간 증시의 메인 테마였던 "AI 투자 사이클"에 노이즈를 주입시킨 실정. 물론 MS 측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지 않은 가운데, 올해 회계연도에 기존대로 800억달러 이상의 CAPEX 투자는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는 했음. 하지만 전략적인 차원에서 일부 지역의 인프라 투자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이 내년 이후의 투자 축소 가능성을 수면 위로 부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나, 이번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AI 밸류체인주들 그간 랠리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임. 일단 현시점에서 주가 반전의 일차적인 관문은 빅테크의 AI 투자 수요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27일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이 될 것. 그 전까지는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시나리오로 AI 주 대응에 나서는 것이 적절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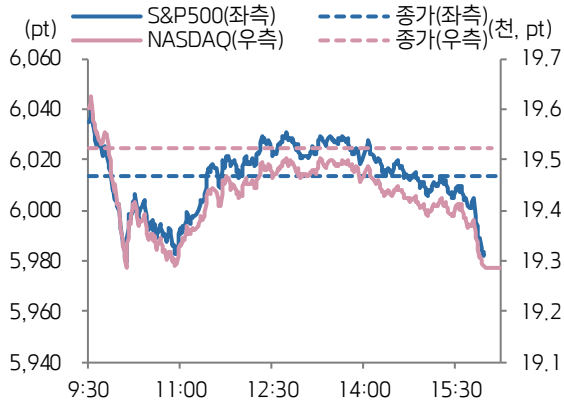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불안 발 나스닥 급락 여파로 1%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장중 미 선물시장 반등, 달러/원 환율 하락, 인터배터리 행사 기대감 등에서 기인한 2차전지주 강세 등에 힘입어 낙폭을 크게 축소한 채로 마감(코스피 -0.4%, 코스닥 -0.2%).

금일에는 미국 AI 주들의 급락 여파가 HBM, 전력기기 등 국내 AI 주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면서 하락세로 출발할 전망. 테슬라(-2.1%) 등 전기차 관련주들이 업계 경쟁 심화 불안 등으로 약세를 보였다는 점도 지난 수거래일간 급 반등세를 보였던 이차전지 업종들의 차익실현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다만, MS의 데이터센터 축소 이슈는 전일 국내 증시 장중에 선반영 측면이 있는 만큼, 장중에는 낙폭을 만회하면서 한은 금통위 이후 환율 변화(금리 인하 전망이 컨센서스) 등에 영향을 받으며 업종 차별화 장세를 보일 전망.

이런 측면에서 금일에는 주주환원 포함 저 PBR주들을 중심으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소지. 전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충실 의무 및 전자 주주총회" 등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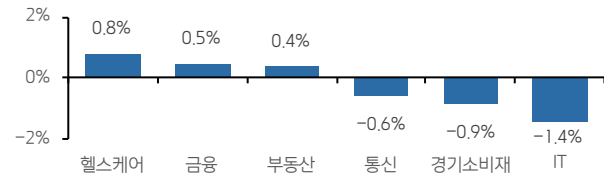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및 의결까지 가야 하며, 아직까지는 정치권 내 대립으로 이른 시일 내에 통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중론. 다만, 이전보다 주주환원을 중시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목할 일이므로, 금일 주가 변동성 확대 시 완충 역할을 하는 저 PBR 등 밸류업 관련 주들의 주가 변화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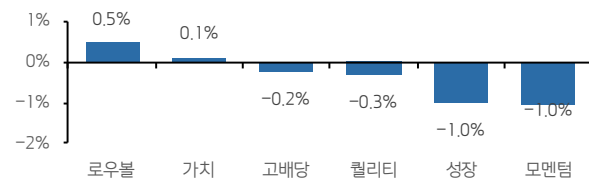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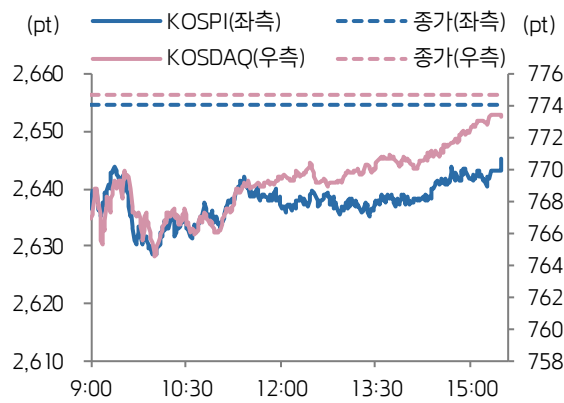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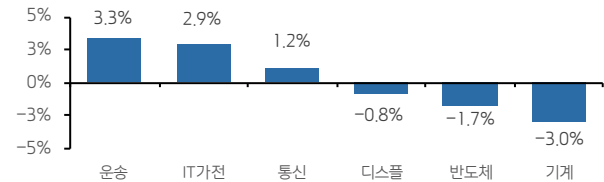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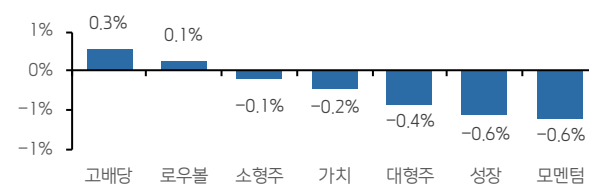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47.10	+0.63%	-1.22%	GM	46.57	+0.6%	-12.58%
마이크로소프트	404.00	-1.03%	-3.96%	일라이릴리	881.40	+0.88%	+14.37%
알파벳	179.25	-0.23%	-5.31%	월마트	93.67	-1.17%	+3.67%
메타	668.13	-2.26%	+14.11%	JP모건	261.34	-1.1%	+9.59%
아마존	212.71	-1.79%	-3.04%	엑손모빌	111.27	+0.52%	+4.36%
테슬라	330.53	-2.15%	-18.15%	세브론	157.89	+0.62%	+10.22%
엔비디아	130.28	-3.09%	-2.99%	제너럴일렉트릭	93.67	-1.2%	+3.7%
브로드컴	207.93	-4.91%	-10.31%	캐터필러	338.92	-0.33%	-6.23%
AMD	108.11	-2.46%	-10.5%	보잉	179.91	+1.56%	+1.64%
마이크론	95.41	-3.47%	+13.37%	넥스트에라	70.80	-1.1%	-1.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645.27	-0.35%	+10.24%	USD/KRW	1,430.50	-0.25%	-2.84%
코스피200	349.90	-0.57%	+10.09%	달러 지수	106.67	+0.06%	-1.67%
코스닥	773.33	-0.17%	+14.03%	EUR/USD	1.05	+0.1%	+1.1%
코스닥150	1,316.41	+0.15%	+16.52%	USD/CNH	7.25	-0.02%	-1.15%
S&P500	5,983.25	-0.5%	+1.73%	USD/JPY	149.72	+0.3%	-4.76%
NASDAQ	19,286.93	-1.21%	-0.12%	채권시장			
다우	43,461.21	+0.08%	+2.16%	가격	DTD(bp)	YTD(bp)	
VIX	18.98	+4.23%	+9.39%	국고채 3년	2.610	-0.5bp	+1.5bp
러셀2000	2,178.27	-0.78%	-2.33%	국고채 10년	2.822	-3bp	-4.9bp
필라. 반도체	5,003.54	-2.59%	+0.47%	미국 국채 2년	4.175	-2.3bp	-6.7bp
다우 운송	15,915.83	-0.74%	+0.13%	미국 국채 10년	4.400	-3.1bp	-16.9bp
상해종합	3,373.03	-0.18%	+0.63%	미국 국채 30년	4.655	-2.3bp	-12.6bp
항셍 H	8,618.88	-0.55%	+18.23%	독일 국채 10년	2.477	+0.7bp	+11bp
인도 SENSEX	74,454.41	-1.14%	-4.72%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5,453.76	-0.39%	+11.39%	WTI	70.70	+0.43%	-0.23%
MSCI 전세계 지수	874.54	-1.04%	+3.95%	브렌트유	74.78	+0.47%	+0.19%
MSCI DM 지수	3,843.08	-1.3%	+3.65%	금	2,963.20	+0.34%	+11.15%
MSCI EM 지수	1,147.30	+1.31%	+6.68%	은	32.60	-1.24%	+11.49%
MSCI 한국 ETF	57.47	-0.21%	+12.93%	구리	451.50	-0.99%	+12.13%
디지털화폐				BDI	981.00	+4.25%	-1.6%
비트코인	93,957.79	-1.89%	+0.26%	옥수수	497.00	-1.58%	+6.71%
이더리움	2,636.40	-6.12%	-21.22%	밀	593.50	-1.74%	+5.51%
				대두	1,047.50	-0.92%	+2.47%
				커피	384.80	-1.14%	+22.2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월 24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